

김재권의 새로운 심신 동일론

백 도 형 (숭실대 철학과 교수)

주 제 심리철학, 형이상학, 김재권(Kim, Jaegwon)

주요어 김재권, 기능적 환원, 동일론, 위, 차

요약문 이 글에서는 김재권의 최근의 입장인 기능적 환원을 통한 새로운 심신 동일론을 살펴 보려고 한다. 기능적 환원주의는 그의 최근 저서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을 전후하여 구체화된 입장으로서, 그는 그것을 통해 기존의 환원 모형을 비판·수정하고 새로운 환원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보려고 한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그의 잘 알려진 비판에 대해 비환원주의자들은 '일반화 논변'으로 응수하는데, 김재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세계관에서 '위'와 '차'를 구별한다. 그리고 그 구별은 사실상 그의 기능적 환원 모형에도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별히 이 구별이 정당한가를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 이 구별은 의미있는 중요한 구별이지만, '일반화 논변'을 극복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함을 보이겠다. 아울러 환원주의에 대해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비판인 복수실현 가능성 논변에 대해 그의 기능적 환원주의가 갖는 가능성들도 더듬어 보겠다.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김재권의 최근의 입장인 기능적 환원을 통한 새로운 심신 동일론을 살펴 보려고 한다. 기능적 환원주의는 그의 최근 저서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¹⁾을 전후하여 구체화된 입장으로서, 그는 그것을 통해

1) Kim(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MIT), 국역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하종호 역, 철학과연실사, 1999) 앞으로 본문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에는 영어본의 쪽수만 ()안에 표기하겠다.

기존의 환원 모형을 비판·수정하고 새로운 환원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보려고 한다. 다음 장인 2장에서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과 함께 기능적 환원 모형에 관해 살펴 보겠고, 3장에서는 그의 비판에 대한 비환원주의자들의 응수인 ‘일반화 논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위’와 ‘차’의 구별에 관해 살펴 보겠다.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그 구별은 사실상 그의 기능적 환원 모형에도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4장에서는 환원주의에 대해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비판인 복수실현 가능성 논변에 대해 그의 기능적 환원주의가 갖는 가능성들을 더듬어 보겠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의 새로운 환원주의가 갖는 철학적 의의에 관해 살펴 볼 것이다.

2. 기능적 환원을 통한 심신 동일론

잘 알려진대로 김재권은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형이상학적 취약함을 비판하였다. 그 비판의 골자는 이렇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인간 행위의 원인으로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의 두 원인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데, 물리적 원인만으로 이미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원인은 불필요한 부수현상이 되어서 사실상 제거주의가 되어 버린다. 또 그 두 원인이 합쳐져서야 비로소 충분한 원인이 되는 부분적 원인의 경우와, 그 둘이 이미 각각 독립적으로 충분한 원인인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의 경우는, 물리주의의 조건인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을 어기게 된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골자다.

그는 최근 저서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에서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수반 논변’을 제시하고 있다. 수반 논변에서는 두 원인 대신 정신적 원인과 수반 기초가 되는 물리 조건의 두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둘 다 행위 사건을 발생시키는 데에 충분 조건이 되어서 과잉결정의 문제에 빠지게 되거나, 물리 조건만으로도 이미 충분 조건이 됨

으로써 정신적 원인은 부수현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논변 모두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핵심은 이렇다. 정신적 원인은 그것 없이도 물리적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수현상에 불과하거나, 정신적 원인이 충분 조건이 된다면 두 충분 조건에 의해 과잉결정되는 이상한 귀결이 도출된다. 따라서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김재권은 심신 환원주의를 물리주의와 정신적인 것의 실재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능적 환원을 통한 심신 동일론>은 그의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을 전후로 보여지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가 이렇게 ‘새로운 동일론’을 구성하는 이유는 네이글 식의(Nagelian) 쌍조건적 교량 법칙을 통한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환원 모형에 대한 그의 회의와 불만 때문이다.²⁾ 우선 심신 환원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비판인 복수실현 가능성 논변은 교량 법칙을 얻을 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교량 법칙에 의한 종래의 환원 모형은 교량 법칙에 의한 속성 간의 연결만을 보여줄 뿐이었지, 왜 그러한 연결이 일어나는 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없는 ‘환원’은 설사 적절한 물리 조건으로부터 정신 현상이 발생함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지 설명될 수 없는 맹목적인 사실(brute fact)이 되는 것으로, 결국 창발론자들이 말하는 ‘창발’과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³⁾ 김재권에 의하면 창발론도 이 정도의 설명없는 예측은 한다. 즉 창발론에 의해서도 적절한 물리 조건이 이루어지면 상위 속성이 창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창발론의 이런 예측을 ‘귀납적 예측(inductive prediction)’이라고 하는 반면, 우리가 ‘환원’에 기대하는 것은 이론

2) 이하에 나오는 네이글 식의 교량 법칙에 대한 그의 비판 내용에 관해서는 *Mind in a Physical World*, p.90 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 *Mind in a Physical World*, 4장 1절.

적 설명을 통한 예측이라고 하면서 이를 '이론적 예측(theoretical prediction)'이라고 한다.⁴⁾ 즉 네이글 식의 환원 모형으로는 창발론의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귀납적 예측'만 할 수 있을 뿐 '이론적 예측'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네이글 식의 환원 모형으로는 애초에 심신 동일론이나 환원주의가 기대했던 존재론적 단순성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량 법칙은 여타의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경험과학에 의해 발견되는 우연적인 법칙이므로 교량 법칙 $M \leftrightarrow P$ 가 설사 성립하더라도 M 과 P 는 여전히 구별되는 속성으로 남게 되므로 기대했던 단순성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술어들을 끌어들이는 셈이 되어 존재론을 확장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량 법칙 $M \leftrightarrow P$ 를 동일성 명제 $M = P$ 로 강화시키려는 것이 김재권의 새로운 동일론의 취지이다. 동일론을 추구함으로써 존재론적 단순성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교량 법칙이 만족시키지 못했던 설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⁵⁾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동일론은 기능적 환원 모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량 법칙은 경험에 의해 밝혀지는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을 모두 서로 구별되는 내재적(intrinsic)인 것으로 보는 한 그것들을 서로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종래의 환원 모형을 버리고 기능적 환원을 채택하는 이유이다.⁽⁹⁸⁾ 기능적 환원 모형으로는 두 속성이 그냥 동일하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성의 근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적 환원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⁶⁾

4) Kim(1999A) "Making Sense of Emergence" in *Philosophical Studies* 95, p.6 이하, 특히 p.8.

5) "동일성은 설명의 문제가 형성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을 없애 버린다. <힐러리 로드햄이 나타날 때는 항상 어디서나 영부인도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힐러리 로드햄과 영부인은 동일하다>는 답변 이상의 더 나은 결정적인 답변은 없다."(98)

6) Kim(draft1), *Mind and Matter at the Century's Close*, Lecture 3 pp.5-6(ms).

- 1) 환원목표 속성(target property)의 기능화 : 환원되는 속성 M에 다음 형태의 기능적 정의 부여
 M을 가짐=def. 인과적 과업 C를 수행하는 (환원기초 영역의) 어떤 속성 P를 가짐 기능적으로 정의된 속성 M에 대해, M을 정의하는 인과적 역할에 들어맞는 (즉 인과적 과업 C를 수행하는) 기초 영역의 속성을 M의 “실현자”라고 부른다.
- 2) M의 실현자 확인 : 환원기초 영역에서 인과적 과업 C를 수행하는 속성(혹은 기제)을 찾음
- 3) 설명 이론 전개 : M의 실현자가 과업 C를 수행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 구성

즉 정신 속성의 기능화를 통해, 정신 속성이 환원기초 속성인 물리 속성과 인과적 역할이 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 속성의 동일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최근 저서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을 전후해서야 비로소 구체화된 것이고 동일론을 표방하는 만큼 단순히 환원주의를 옹호하던 예전의 입장에 비해 더 강화된 것 같은 인상도 주지만, 그가 유지하는 기본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귀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신 인과의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속성의 실재와 관련해서 그가 강조하던 입장이 바로 ‘알렉산더의 명제’이다. 그에 따라 실재하는 속성이란 인과적 힘을 가진, 즉 인과적 역할을 지닌 속성을 말한다. 그가 환원주의(혹은 환원주의이면서도 보다 더 강한 입장인 동일론)를 옹호하려는 문제의식이 물리주의와 정신 실재론을 함께 옹호하려는 것이니 만큼, 즉 정신 속성의 실재성을 물리 속성에 환원됨을 통해 밝히려는 것이니 만큼, 그 때의 환원은 어떤 정신 속성이 갖는 인과적 힘(혹은 인과적 역할)이 사실상 어떤 물리 속성이 갖는 인과적 힘과 동일함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고 그의 ‘기능적 환원을 통한 동일론’은 바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일반화 논변과 '위', '차'의 구별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김재권의 배제 논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시하였다. 물리 속성에 환원되지 않는 정신 속성의 인과적 힘을 배제한다면 이러한 배제는 비단 정신 속성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위 속성(higher-level property)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결국 가장 기초 속성인 미시물리 속성을 제외한 모든 상위 속성, 즉 심리 속성 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 과학의 속성들이 전부 배제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심지어는 대표적인 자연과학의 하나인 생물학의 속성, 그리고 일상 사물의 속성과 같은 거시물리 속성조차도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상식적 직관에 매우 반하는 귀결이라는 것이다. 김재권은 비환원주의자들의 이러한 비판을 '일반화 논변(generalization argument)'이라고 부른다.

일반화 논변에 대한 김재권의 대응을 살펴 보기 전에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먼저 언급하겠다. 나는 이 논변이 심리철학의 문제들을 보다 넓은 형이상학의 바탕 위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잘 알려진 대로 계층적 세계관이다. 심신 관계는 이러한 계층적 세계관에 포함된 대표적인 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일반화 논변은 심신 문제의 귀결을 다른 형이상학 일반의 문제에까지 확장해 보는 중요한 물음이다. 하지만 나는 일반화 논변이 결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의 손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환원주의자들의 일반화 논변에 따르면 배제 논변은 정신 속성 뿐만 아니라 미시물리 속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위 속성들까지도 모두

7) 그런 점에서 나는 김재권이 암스트롱과 상당히 유사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전에 쓴 논문들에서도 그 점을 주장하였다. 줄고(1995A), 「환원, 속성, 실재론」(『철학』 43집, 1995 봄, 한국철학회), 그리고 줄고(1995B), 「제거주의와 실재론」(『철학연구』 36집, 1995 봄, 철학연구회)을 참조. 물론 암스트롱은 세계의 기본 존재자로 공간적 존재자인 '사태(states of affairs)'를 옹호하고 있고, 김재권은 시간적 존재자인 '사건'을 옹호한다는 명백한 차이는 있다.

부수현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매우 비상식적인 귀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직관적인 귀결을 낳는 배제 논변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만으로는 배제 논변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단지 그 귀결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 이유만으로 배제 논변을 거부한다고 해도 과연 정신 속성 등 상위 속성이 부수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논의의 핵심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미시물리 속성에 비해 상위 속성은 결코 동등할 수 없는 부수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수반을 인정한다면 상위 속성들은 미시물리 속성에 의존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는 비환원주의자의 일반화 논변은 배제 논변에 대한 정면승부를 구차하게 피하는 ‘물귀신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환원주의자들의 일반화 논변에 의해 배제 논변이 유보된다고 해 보자. 정신 속성은 물리 속성에 환원되지 않은 채로 나름대로의 실재성을 인정받으며 자율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다른 상위 속성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결국 존재계층 모두 서로 환원되지 않고 각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게다가 실재성까지도 인정받으며 존재하는 셈이다. 이렇게 다수의 존재계층이 각각 모두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세계의 지나친 팽창이 아닐까? 초창기 분석철학의 문제의식을 촉발한 마이농(Meinong)의 스캔들처럼 말이다.

하여간 김재권은 일반화 논변에 대답하기 위해 속성의 계층에 있어서 ‘위(level)’와 ‘차(order)’를 구별한다. 즉 심신 관계는 동위 관계이며 다만 ‘차’에 의해 구별될 뿐이라는 점에서 상·하위로 구별되는 다른 계층의 속성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배제 논변은 심신 관계에만 적용되어 물리 속성에 환원되지 않는 정신 속성을 배제할 수 있을 뿐 다른 상위 속성들로는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기능적 환원의 단계 1)에서 정신 속성을 “관계적으로 혹은 외재적(extrinsic)으로 해석하거나 재해석”(98)하여 환원을 준비함으로써 정신 속성은 2차 속성

(second-order property)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2차 속성을 논의하는 많은 경우에 1차 실현자들은 미시적 기반을 갖는(micro-based 또는 미시구조적인 microstructural) 속성들인데, 그 속성들은 거시 속성(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실현하는 것들과 동위의 속성들)이라는 것이다.(82) 따라서 심신 관계는 상하위 관계가 아니라 동위에서의 1-2차 관계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 속성은 다른 상위 속성(higher-level property)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신 관계를 동위에서의 1-2차 관계라고 보는 이유는 정신 속성과 그것의 실현자인 물리 속성은 그 담지자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존재자와 체계의 속성들”(82)이라는 점이다.

김재권은 이러한 ‘위’와 ‘차’의 구별을 바탕으로 배제의 문제는 상하위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동위 관계이면서 1-2차 관계인 심신 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심신 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는 다른 상위 속성에까지 일반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심신 관계에 대해서는 기능적 환원을 통한 심신 동일론의 입장을 취하지만, 다른 상위 속성들에 관해선 창발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그는 하위 속성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인과력이 상위 속성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하위 속성으로부터 자율적인 상위 속성의 실재론을 옹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핵심은 심신 관계를 다른 상하위 관계로부터 구별하여 독특하게 만드는 ‘차’의 문제이고 그가 이것을 ‘위’와 구별하는 데에서 이러한 모든 생각이 기인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구별이 의미있는 구별임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구별이 일반화 논변을 방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러한 구별을 하는 이유에 관해 먼저 살펴 보겠다. 김재권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암암리에 받아들여져온 ‘위’에 의한 계층 모형에 대해 재고하고 있는 듯 하다. 그는 최근에 발표된 “계층적 세계의 형이상학”⁸⁾에서 기존의 ‘위’에 의한 계층 모형은 부분-전체 간의 포함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단선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지적이다. 하지만 그는 계산 기계, 지적인 로봇 등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은 만족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속성은 만족시킬 수 없는 반례를 들면서 '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선적인 계층 모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⁹⁾ 그리고 그는 이러한 단선적인 계층 모형을 토대로 형성된 획일적인 환원 모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한다.¹⁰⁾ 그러면서 "환원, 창발, 수반 등을 논의할 때에는 개별 대상 또는 주어진 맥락에서 문제되는 속성들에 의해 묶여지는 개별 대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획일적인 미시-거시 계층에 따라 단선적으로 질서지워진 집합들로 개별 대상을 쪼개는 존재론적인 '위'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¹¹⁾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밖에도 김재권이 심신 관계를 상하위 관계가 아닌 1-2차 관계로 보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이 그 담지자를 공유한다고 보는 생각은 (김재권 선생 본인은 의식하고 있을 지 모르겠지만)¹²⁾ '속성예화론'으로 불리우는 그의 사건 이론에 근거한 것이리라는 것이 나의 짐작이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그의 사건 개념은 <실체(대상 substance/object), 속성, 시간>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건 동일성의 기준도 실체와 실체끼리, 속성과 속성끼리, 시간과 시간끼리의 동일성이 모두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

8) Kim, "The Metaphysics of a Layered World" (Draft of 4/16/99)

9) 같은 글, p.6 (ms) 이하 참조.

10) 같은 글, p.10 (ms).

11) 같은 글, p.10(ms).

12) '위'와 '차'의 구별을 그의 사건 이론과 연결시킨 이하의 내용은 전적으로 내가 그의 문제의식을 추적한 결과 갖게 된 생각이다. 따라서 실제로 그가 이 둘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으며, 실제로 이에 관해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의 사건 이론은 주로 6-70년대에 전개되었던 것으로 현재의 생각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 후 자신의 사건 이론을 크게 수정한 적이 없고, 나는 그의 사건 이론이 아직도 그의 형이상학 이론에 당연한 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상 김재권 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그의 사건 이론인 '속성예화론'은 아직도 가장 유력한 사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 <어떤 개체 a가 시간 t에 속성 P를 예시화함>이라는 사건과 <어떤 개체 b가 시간 t*에 속성 Q를 예시화함>이라는 사건과의 동일성은 <개체 a=개체 b, 속성 P=속성 Q, 시간 t=시간 t*>의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심신 관계를 문제삼을 때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이 그 담지자(속성을 지닌 실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신 사건과 물리 사건의 동일성을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고, 즉 개별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인과 관계는 속성이 예화되는 사건 개별자들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김재권에게는 상·하위 사건 간에 개별자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위’에 근거한 계층적 모형이 인과를 설명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재권으로서는 그런 사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 ‘위’와 ‘차’를 차별화하여 심신 관계를 상하위 관계가 아닌 1-2차 관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을 갖는 실체(대상)가 과연 동일한가? 김재권은 고통이라는 나의 정신 상태와 나의 두뇌 상태 간의 동일성이 심신 동일론에서 문제삼는 전형적인 동일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심물 관계에서의 ‘물리적인 것’이란 결국 미시물리적인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김재권은 정신 속성의 실현자인 미시적 기반을 갖는 속성을 거시 속성이라고 하면서(82, 84) 정신 속성과 그 실현자를 같은 실체의 속성 즉 동위의 속성들로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이 때의 ‘물리 속성’을 기초 입자들의 속성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다.(113) 실제로 김재권은 일반화 논변에 호소하는 반환원주의자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물리 세계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은 근거없는 전제에서 비롯한다고 보고(113), “미시적 기반을 갖는 속성들은 물리적으로 간주한다”(114)고 말한다.

이제 김재권은 이러한 구별을 바탕으로 심신 관계를 ‘위’가 아닌 ‘차’의 관계로 설명하며, 1-2차 관계인 심신 관계가 아닌 다른 상위 속성들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반화 논변’은 다른 상위 속성들 때까지 일반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사건 개념을 토대로

해서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사건 이론을 토대로 하는 한, 상하위 사건들 간에는 서로 동일성이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체들 간의 동일성이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실체들 간의 동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 간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전혀 성립할 수 없다. 사건들 간의 동일성은 단지 심신 관계와 같은 동위의 1-2차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하위 사건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개별자 차원의 동일성도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원(그의 '기능적 환원 모형'에 의한)도 성립할 수 없다. 실체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의 상위 속성은 그대로는¹³⁾ 하위 속성의 2차 속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 속성의 인과력은 하위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인과력이 되는 셈이고 이 대목에서 김재권은 정신 속성 아닌 다른 상위 속성들에 대해서는 창발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은 조금 전에 본대로 미시물리적인 것만을 '물리적인 것'으로 보는 협소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미시적 기반을 갖는 거시 속성들까지도 모두 물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런 거시 속성은 미시 속성이 갖지 않는 '새로운' 인과력을 갖는데, 이것을 물리적인 것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114)

하지만 그가 이전에는 창발론을 비롯한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정신 속성에 대해 부수현상론의 혐의를 두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는 이러한 다른 상위 속성들은 부수현상으로 보지 않는가? 왜 수반 논변, 배제 논변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상위의 인과력이 하위의 인과력으로 환원되지 않는 경우, 전자를 '새로운' 인과력으로 인정할(즉 창발을 통해 실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부수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김재권이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수반

13) '그대로는' 2차 속성이 될 수 없으므로, 기능적 환원이 적용될 수 없겠지만, (조금 후에 지적하겠듯이) 인과적 역할에 의해 기능화 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논변 등 과잉결정 논변은 간단히 말해 두 개의 충분조건이 함께 존재하는 데에서 오는 과잉결정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비환원주의자들은 두 조건(혹은 정신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의 두 원인)이 서로 환원되지 않는 자율적인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 논변에서 논의의 초점은 두 조건(혹은 원인)이 서로 다르다는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새롭다는) 것¹⁴⁾이 아니고 두 조건(혹은 원인)이 각각 충분한 조건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상위 속성에 관해서는 왜 수반 논변,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배제 논변이 성립함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 대목에서 나는 그의 사건 이론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의 사건 이론에 대해 그 동안 많이 거론되어 온 비판으로는, 그의 사건 개념이 속성의 수를 증대시킴에 따라 사건 존재자의 수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었다.¹⁵⁾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김재권은 이미 스스로의 이론의 틀 안에서 이러한 비판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김재권은 ‘알렉산더의 명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있어서 속성은 언어인 술어로 씌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힘이 있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보는

14) 크리스프와 워필드는 수반 논변을 이루고 있는 두 설명 유형이 하나는 인과적 설명임에 비해 다른 하나는 동시적인(synchronic)인 비인과적 설명이기 때문에 두 설명 유형은 서로 경쟁적이지 않고, 그에 따라 수반 논변에 의한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Crisp & Warfield(forthcoming) pp.10-1을 보라.

15) 이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으로는 데이비슨(Davidson)과 로젠버그(Rosenberg), 헤드먼(Hedman) 등이 있으며[Kim(1976), “Events as Property Exemplifications” rp. in : *Supervenience and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43의 각주 19-20 참조], 국내에서도 김영정 「사건 존재론」(『언어·논리·존재』 철학과현실사, 1997)과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No Event Theory of Events* (Brown University, 1985)가 있다. 이종왕은 2000년 6월에 한국 분석철학회에서 발표한 ‘김재권식 기능주의와 새로운 기능주의적 환원이론의 가능성’에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재권은 사건에 관한 보다 ‘느슨한 해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 때 그 글의 논평자로서, ‘알렉산더의 명제’를 강조하는 김재권은 최근에는 이미 이종왕의 ‘느슨한 해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하였다. 이종왕의 보다 자세한 주장에 관해선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Events, Functional Reductionism, and Mental Causation: An Examination of Kim's Theory* (Lincoln, Nebraska, 2000)을 보라.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김재권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논변에서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으로 이루어진 두 충분한 원인에 의해 결과가 과잉결정되는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그 경우 문제되는 원인이 속성들로 이루어진 두 원인 사건이 아니고 단지 서로 다른 두 술어로 서술된 하나의 원인일 뿐이었다면 과잉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김재권의 속성과 사건에 관한 이론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존재 차원의 속성을 언어 차원의 술어와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속성에 얽힌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그의 사건 이론에 관해 내가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속성이 아니라 속성의 담지자인 실체의 문제이다. 특히 여기서는 ‘위’와 구별된다고 그가 주장하는 ‘차’가 실체의 동일성 때문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체에 특별히 주목하려는 것이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김재권의 사건 이론에 의하면 상위 사건은 미시물리 사건과 개별자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건의 세 요소중 실체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하위의 경우는 서로 동일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어떤 대상의 미시적 기반을 갖는 속성이 그 대상의 모든 거시 속성이 갖는 인과적 힘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 인과적 힘은 그 대상에 속한 것이지 그 대상의 미시적 구성 요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시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⁶⁾ 즉 결국 그는 동일한 실체를 전제로 해서만 환원의 문제에 접근하려 하고 수반도 동위의 관계에서 미시적 기반을 갖는 속성과 거시 속성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종래의 계층 모형의 바탕인 ‘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차’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차’를 바탕으로 그는 새로운 환원 모형인 기능적 환

16) Kim, "The Metaphysics of a Layered World", p.14 (ms).

원과 물리적 실현주의를 옹호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 속성의 인과력이 '새로울' 수 있는가? 또 만약 '새롭다'면 부수현상의 혐의를 벗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수반에 대한 김재권의 입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수반은 동위의 1-2차 관계 간에 성립하는 수반(앞으로 '1-2차 수반'이라고 부르겠음)이며, 두 번째 수반은 상·하위 간에 성립하는 수반(앞으로 '상·하위 수반'이라고 부르겠음)이다.

[1-2차 수반] 어떤 대상의 거시 속성은 그 대상의 미시 기반 속성에 수반한다.

[상·하위 수반] 미시물리적으로 동일한 세계는 (거시적으로도) 동일한 세계이다.¹⁷⁾

우선 김재권은 1-2차 수반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상·하위 수반의 경우는 어떨까? 상·하위 수반이 1-2차 수반과 다른 점은 하나의 일정한 대상에 국한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에 비해 1-2차 수반은 하나의 일정한 대상이 갖는 두 속성 간에 성립하는 수반 관계이다. 즉 1-2차 수반은 동위의 1-2차 속성 간에 성립하는 수반이고, 상·하위 수반은 상·하위의 속성 간에,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하위의 기초 속성과 상위 속성 간에 성립하는 수반이다. 상·하위 수반에 대한 김재권의 입장은 분명치 않다.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보고 검토하겠¹⁸⁾ 하지만 두 가능성에 모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상·하위 수반을 받아들이는 경우부터 보자. 그렇다면 상위 속성은

17) 1-2차 수반과 상·하위 수반 두 가지는 Kim, "The Metaphysics of a Layered World", p.12 (ms)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전체론적 수반 개념들중 적절한 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인용한 것이다.

18) 이 논문의 발표에 대한 답변에서 김재권 선생님께서 자신의 입장이 1-2차 수반은 받아들이지만, 상·하위 수반은 받아들이지 않는 두 번째 입장이라고 확인해 주셨다.

하위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하위 속성은 상위 속성을 발생시키는 데에 충분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상위 속성에 어떤 새로운 인과력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상위 속성은 결국 부수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¹⁹⁾

둘째 상·하위 수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 김재권이 상·하위 수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석도 있다. 즉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주장에 따르면 거시 속성은 미시 속성이 갖지 않는 새로운 인과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 속성을 물리적인 것에서 제외하고 미시 속성만 물리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물리 영역의 인과적 폐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된다.(114) 즉 이런 입장에 따르면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합해져서야 비로소 폐쇄적인 물리 영역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설사 거시 속성은 미시 속성과는 상이한 새로운 인과력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거시 실체는 미시 실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인과력을 지닌 속성 간의 과잉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각각의 실체로 이루어진 세계가 결국 하나의 세계라면, 거시 실체는 세계를 이루는 데에 새로운 역할을 갖지 못하는 (왜냐하면 미시 실체만으로 이미 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부수현상적 실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거시 실체와 미시 실체에 의해 세계는 과잉구성(over-constructed)되는 셈이다. 결국 어느 경우든 상·하위 속성 간에 창발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위’와 ‘차’의 구별에 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이 구별이 설사 의미있는 구별이라고 할 지라도 이러한 구별이 의미있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쉽게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심신 관계는 상·하위 관계가 아니라 동위의 1-2차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구별의 핵심이고 이러한 핵심적 내용으로 인해 기능적 환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심신 관계가 상·하위 관계가 아닌 동위의 1-2차

19) Noordhof(1999)는 김재권을 바로 이 첫째 입장으로 해석하고 비판한다. 이 글에 대한 김재권의 대답 Kim(1999B)도 참조하시오.

관계임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심신 관계에만 독특하게 해당되는 일일까? 다른 상위 속성들에 대해서도 기능적 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각 계층(여기서는 '위'에 해당할 것이다)을 설명하는 개별 과학들은 대체로 인과적 설명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각 계층의 이론적 존재자들은 각기 나름대로 인과적 역할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기능화시키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물론 동위의 1-2차 관계에서는 두 속성이 실체를 공유한다는 특징이 더 추가되지만, 이것도 각 거시 과학의 이론적 존재자를 고정시켜 놓고 그 존재자를 구성하는 하위 계층의 구성요소가 갖는 속성을 그 거시적인 이론적 존재자의 미시적 기반 속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상위 속성이 하위 속성에 대해 2차 속성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겠고, 그렇다면 원래 일반화 논변을 제시한 비환원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모든 계층이 '차'에 의해 일반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내 생각이 옳다면 이 점은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주의에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하지만 둘 다 그에게 그리 낙관적인 소식은 아닐 것 같다. 우선 첫째 모든 계층이 다시 일반화된다면 환원주의를 통해 물리주의를 옹호하려는 김재권으로서는 이제 심신 관계에만 환원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위 속성들이 물리 속성으로 환원됨을 보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다. 둘째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김재권은 환원주의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유력한 반론이었던 복수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국지적 환원(local reduction)의 방식을 택한다.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환원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거시 과학의 이론적 존재자가 미시기반적 실현자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모두 국지적 환원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원적 물리주의는 바로 옹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쉬운, 어떤 점에서는 시시한(trivial) 환원주의는 아닐까? 이런 '환원주의'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김재권은 일반화 논변에 의한 비환원주의자들의 비판에 직면하여 '위'

와 '차'를 구별함으로써 일반화를 막아보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성공을 그리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4. 복수실현 가능성과 환원

역사적으로 심신 환원주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바로 복수실현 가능성 논변이다. 즉 생물학적 종에 따라 정신 속성은 상이하게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신 속성과 물리 속성 간의 동일성 내지 환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논변의 주 내용이다. 심신 환원주의를 옹호하려는 김재권은 오래 전부터 이 논변에 대해 왔다.²⁰⁾ 잘 알려진대로 그는 이 논변에 대해 이 논변이 종에 상관없는 일반적인 정신 속성에 대한 환원에는 반례로 성립하지만 종에 제한적인 정신 속성은 일정한 물리적 실현자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 제한적인 심신 환원은 성립하며, 이에 대해선 복수실현 가능성 논변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재권은 이러한 종 제한적인 환원을 '국지적 환원'이라 부르며, 그 동안 김재권은 국지적 환원이라는 제한적인 심신 환원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제 '기능적 환원'이라는 새로운 환원 모형으로 무장한 김재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정신 속성 M을 P1과 P2라는 복수의 실현자를 가진 속성이라고 하자. 즉 체계 S1에서는 P1이 M을 실현하고, 체계 S2에서는 P2가 M을 실현하는 속성이라고 하자. 기능적 환원 모형을 적용하여 이것을 다시 서술하면 S1이라는 종에서 M의 인과적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P1이 실현하며, S2라는 종에서는 M의 인과적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P2가 실현한다고 할

20) 흔히 Kim(1992), "Multiple Realization and the Metaphysics of Reduction" in :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992. 3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더 이전에 Kim(1972), "Phenomenal Properties, Psychophysical Laws, and the Identity Theory" in : *Monist* 56 (1972)에서도 나와 있다.

수 있다.(111-2) 결국 이상의 서술은 기능적 환원 모형을 통한 국지적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²¹⁾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심신 환원주의는 물리주의와 정신 실재론을 함께 옹호할 수 있는 매력을 지녔으며, 실제로 그것이 심신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주된 동기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환원주의는 강한 물리주의라는 점에서 유사한 제거주의와 선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 점은 김재권도 인정한 바 있다.²²⁾ 그러나 과연 이러한 국지적 환원이 제거주의와 차별화되는 환원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즉 정신 속성의 실재성을 살릴 수 있을까? 이 글 서두에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김재권의 실재성 기준은 인과적 힘, 인과적 역할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국지적 환원에서 정신 속성 M은 종에 따라 상이하게 물리적으로 실현된다. 이것을 M이 갖는 동일한 인과적 역할이 종에 따라 상이하게 물리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이한 물리적 실현자들은 상이한 인과적 역할을 가지며 그에 따라 상이한 존재 방식을 갖는 것으로 봄으로써 M은 사실상 두 가지 상이한 인과적 역할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신 속성 M과 그 실현자는 (그것이 P1이든 P2이든) 동위의 1-2차 속성일 뿐이며, 그에 따라 실현자가 갖는 인과적 힘 이외에 M이 새로운 인과적 힘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앞에서 본 '위'와 '차'에 대한 김재권의 구별을 염두에 둔다면 더군다나, 여기서 인과적 힘을 갖는 것은 각 실현자인 P1,

21) 이하의 내용은 백도형(1995A), pp.108-11의 내용을 그의 새로운 기능적 환원 모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22) 심신 환원을 인정치 않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나 제거주의에서와는 달리, 환원주의와 동일론에서는 정신 속성의 인과적 힘과 물리 속성의 인과적 힘을 동일시 또는 환원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신 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김재권은 생각한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환원주의가 정신 실재론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며, 환원주의가 정신 사건들을 세계의 합법적 실체들(legitimate entities in the world)로 유지시켜 주는 물리주의적 1원론이라고 주장한다. Kim(1993), "Mental Causation in a Physical World" in : *Science and Knowledge : Philosophical Issues* 3 (E. Villanueva ed.,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1993) p.171, 그리고 Kim(1972), p.180을 볼 것

P2이지 M은 아니다. 만약 복수실현이 아닌 단수실현의 경우라면, 정신 속성과 그 단일 실현자의 인과적 역할이 같다는 사실로 해서 심물 동일성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M의 인과적 힘과 실재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수실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²³⁾

사실 김재권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국지적 환원을 옹호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M을 단일한 속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M1과 M2의 두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 즉 특정한 종 내부에서 M1의 인과적 역할과 동일한 인과적 역할이 P1에 의해 실현되고 또 M2의 인과적 역할과 동일한 인과적 역할이 P2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종 내부로 국한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는 단수실현이 일어나는 셈이니 기능적 환원을 통해 심물 동일론을 옹호할 수 있을 듯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지적 환원은 종 내부에서는 단수실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생물학적 분류체계는 잘 알려져 있듯이 계통적이므로 종 이하에서도 분류 항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분류 항목에 따라 생물학적 유형이 더 세분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종 내부로 국한한다고 해서 단수실현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다. 즉 복수실현은 종 내부에서도 또 보다 세분화된 유형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종속에는 하나의 정신 사

23) 김재권 선생은 이 논문의 발표에 대한 답변에서 복수실현되는 정신 속성은 인과적으로 무력한(causally impotent) 것이 아니고 인과적으로 이질적인(causally heterogeneous)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셨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신 속성의 존재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까? 정신 속성 M이 여기서는 P1 또는 P2로 복수실현된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 둘과는 또 다른 P9이 있고 그것은 M과는 다른 정신 속성의 실현자들중 하나라고 해 보자. 여기 있는 P1, P2, P9중 특별히 P9이 아닌 P1과 P2만을 관련지을 근거가 있을까? <정신 속성 M의 실현자라는 사실>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인과적으로 이질적인> 실현자들을 갖는 정신 속성 M의 속성으로서의 존재가 유지되는가>의 물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근거이다.

그리고 '같다/다르다'로 표현되는 동일성/차이는 '있다/없다'로 표현되는 존재/비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정신 속성 M의 복수실현 상황이란 M이 단일한 물리 속성 P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P1과 P2로 복수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존재하는 것은 M이 아니라 P1으로 실현되는 M1, 또는 P2로 실현되는 M2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M은 존재하지 않고 M1 혹은 M2가 존재하는 것이다.

건 개별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일한 물리적 실현자와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개별자 동일론이 되며,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전형적인 입장이 되어 버리는 셈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나는 기능적 환원 모형을 통한 김재권 선생님의 새로운 심신 동일론에 관해 살펴 보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생님의 새로운 입장은 네이글 식의 환원 모형에 대한 반성, 또 ‘위’와 ‘차’의 구별 등 그 동안 많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여겨 온 상식들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 종래의 상식은 이 글을 쓰는 나에게도 익숙한 것이어서 그것들에 대한 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생님의 새 이론에 대해 우선 낯선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 글에서 내가 재구성해 놓은 내용이 선생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하지만 설사 내가 제시한 문제점들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생의 입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덧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께서 추구하는 심신 환원주의의 내지 동일론은 지금 심리철학계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기꺼이 옹호하는 주류 입장이 아니다. 복수실현 가능성 논변을 비롯해 그 입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비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꺼이 옹호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권 선생이 심신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그것이 물리주의와 정신 인과, 정신적인 것의 실재론을 함께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원주의의 성공가능성에 회의적인 많은 철학자들도 환원주의가 갖는 그런 강점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이 글에서 제시한 지적들이 옳더라도, 또 내가 제시한 것들은 옳지 않더라도 환원주의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께서 지향하는 입장을 감안한다

면 그런 약간의 문제점들은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김재권 선생님은 이미 오래 전에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과 '수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이제는 사건과 수반을 현대 형이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로 이끌어 내었고, 사건과 수반에 관한 그의 입장은 이제는 누구라도 가장 표준적이고 유력한 입장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정신 인과에 관해 최근에 발전시키고 있는 논의들은 한 동안 주류 입장이었던 비환원적 물리주의 진영의 많은 철학자들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유력한 비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살펴 본 대로 그의 최근의 생각인 기능적 환원주의도 누구나 당연히 여기고 있던 상식들에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환원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정 (1997) 「사건 존재론」 (『언어 · 논리 · 존재』 철학과현실사, 1997)
- 백도형 (1995A), 「환원, 속성, 실재론」 (『哲學』 제 43집 1995 봄호, 한국 철학회)
- (1995B), 「제거주의와 실재론」 (『哲學研究』 제 36집 1995 봄호, 철학연구회)
- 이종왕 (draft), 「김재권식 기능주의와 새로운 기능주의적 환원이론의 가능성」 (한국분석철학회 발표문, 2000년 6월)
- Crisp, T. & Warfield, F. (forthcoming), “Kim's Master Argument” forthcoming in : Nous
- Kim, J.(1972), “Phenomenal Properties, Psychophysical Laws, and the Identity Theory” in : Monist 56 (1972)
- (1976), “Events as Property Exemplifications” in : *Supervenience and Mind* (K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1992), “Multiple Realization and the Metaphysics of Reduction” in :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992. 3
- (1993), “Mental Causation in a Physical World” in : *Science and Knowledge : Philosophical Issues* 3 (E. Villanueva ed.,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1993)
-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MIT), 국역본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 (하중호 역, 철학과현실사, 1999)
- (1999A), “Making Sense of Emergence” in *Philosophical Studies* 95
- (1999B), “Supervenient Properties and Micro-based Properties: A Reply to Noordhof” in :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99
- _____ (draft1) *Mind and Matter at the Century's Close*, Lecture 3
- _____ (draft2) “The Metaphysics of a Layered World” (Draft of 4/16/99)
- Kim, Youngjung (1985), *No Event Theory of Events* (Brown University, 1985)
- Lee, Jongwang (2000), *Events, Functional Reductionism, and Mental Causation*:

An Examination of Kim's Theory (Lincoln, Nebraska, 2000)

Noordhof, Paul (1999) "Micro-based Properties and the Supervenience Argument:
A Response to Kim" in :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99